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의 삶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온갖 부와 권세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까? 그가 무엇이 부족했기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삭개오에게 왜 이런 간절함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것으로 그의 육체는 채워졌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우리 영혼 안에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는 삭개오의 간절함, 예수님의 옷 끝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수가성 여인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셋째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이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3-14)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0/18(월)	10/19(화)	10/20(수)	10/21(목)	10/22(금)	10/23(토)	10/24(주일)
마13-15	마16-18	마19-21	마22-24	마25-26	마27-28,막1	막2-4

QT

이번 주 QT 말씀

10/18(월)	10/19(화)	10/20(수)	10/21(목)	10/22(금)	10/23(토)	10/24(주일)
요9:11-24	요9:25-35	요10:1-12	요10:13-22	요11:1-11	요11:12-20	요12:1-12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은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3.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나눠 주세요.
4.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구원에 대해서 나눠 주세요.